

국가예산 확보 노력 '결실'

장수군, 내년도 국가예산 올해 대비 557억원 증가 1197억원 확보

장수군이 2023년도에 확보한 국가예산으로 2022년 대비 약 557억원(국·도비 등)이 증가한 1,197억원(국·도비 등)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건축재정 기초로 인하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최훈식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10~11월 국회단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 안호영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전철철 위원장, 예결소위 한병도 의원, 이용호 의원, 정운천 의원, 진성준 의원을 방문하고 수차례 건의한 군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군이 운영 중인 세종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을 보면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조성사업(총사업비 240억원)을 시작으로 △산서면 농촌공간정비사업(총사업비 154억원) △장수·계남 고향자복지주택사업(총사업비 44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청년스마트팜, 풀벌6차산업단지)(총사업비 164억)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동화지구지방상수도사업(총사업비 60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총사업비 50억원) △장계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총사업비 28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장수소통행정복합센터신축사업(총사업비 48억원) △장계면행정복지센터신축사업(총사업비 40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용성전승관립사업(총사업

비 70억원)은 국회단계에서 최훈식 군수와 관련 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장수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의 정신을 기리며 장수군을 독립운동 유적지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최훈식 군수는 "어려운 국내경제 상황에서도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신속히 대처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한 것이 주요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민선8기 장수군의 대도약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진안군은 영농 특성상 과중기, 수확기에 집중된 인력해소에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각종 농가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농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진안군은 2023년도 395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아 농촌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는 2022년 155명에 비해 약 2.5배가 증가한 인원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앞서 진안군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사업주 115명에 대해 인권, 성희롱, 노사관계, 계절근로자 도입취지 및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내국인 중심의 인력증개센터와 하부하부 단위로 농가에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기 수요가 많은 소규모 영농농업인의 인력해소에 기대되고 있으며 중개 수수료가 없고,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력에 대한 노동임금의 상승효과 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결혼이민자 중 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초청인원 245명과 필리핀, 태국, 미얀마, 라오스등과 MOU체결을 통하여 도입되는 150명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근로여건, 주거환경, 근로로에 사항 등 개인별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탈방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스리랑카 국회부의장, 장수 우수 농업시설 선진지 방문

장수군은 지난 23일 스리랑카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등 총 4명이 관내 우수 농업시설 선진지 시찰을 위해

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부의장 일행단은 토마토 생산 농업법인인 장수뉴젠(회장 신수재),

장수농업기술센터 수정별 생산시설을 방문한 후 최훈식 군수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장수군 우수농산물 생산 현황과 스마트팜 사업의 추진현황 등 군 주요 업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농림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지역특화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스리랑카의 농업 발전을 위한 장수군 주요 농업기술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훈식 군수는 스리랑카의 농업기술 발전을 기원하고 토마토 배지 수입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농산물이 스리랑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상호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스리랑카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원 등 총 4명이 지난 23일 관내 우수 농업시설 선진지 시찰을 위해 장수군을 방문했다.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주목

무주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올해 치매 '동행서비스'가 행정안전부 2022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으로 꼽히면서 무주군의 모범 치매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치매 동행서비스는 치매조기진단을 위해 무주군이 도입한 치매관련 사업이다.

특히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가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사업에 대한 무게감이 크다.

군은 올해 11월 행안부장관상 수상과 혁신 우수기관에게 전달되는 챔피언 인증패까지 품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중으로 담당 공무원 등 전문 인력이 가족을 대신해 60세 이상 군민의 치매조기진단을 위한 병원검진부터 처방전 확인과 약품 구매, 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192명이 동행 검진을 받아

152명의 신규 치매환자를 발굴하면서 치매환자의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치매 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생활 체감도를 비롯해 확산의 용이성, 혁신성, 예산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군은 치매환자와 군민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이 큰 사업임을 감안해 내년도도 치매 동행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치매는 조기진단만 되면 중증 상태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조기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혁신사례로 꼽힌 만큼 앞으로도 동행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고위험군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협약병원 진단검사를 원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동행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진안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개시했다.

군은 오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표고재배시설,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관련 기계·경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특히 2023년에는 산림특화작물 5종(여름두류, 표고, 산양삼, 호두, 산마늘)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임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우스시설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난방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목재펠릿보일러(주택) 지원사업도 신청을 받는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진안군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이웃사랑 나눔으로 '훈훈'

각계각층서 이웃돕기 성금·장학금 기탁 이어져

무주군에 이웃사랑 나눔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6일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정성껏 모은 약 2,424만8천 원의 성금을 전북공동모금회에 기탁, 취약계층에게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51개 단체 및 33명의 개인이 후원에 동참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가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성금을 모금했다. 이날 오전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모아진 성금을 전북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권삼일 회장은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무주 발전에 원동력이 되신 군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금에 임했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집수리비,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날 무주군 교육발전재단에 미래 세대들에게 써달라면서 장학금 기탁도 이어졌다.

무주군농민회에서 1백만 원, 적상면이장협의회 1백만 원, 적상면발전협의회 1백만 원, 무주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2백만 원, 무주농협이 1천만의 장학금을 각각 기탁했다.

무주군농민회 이경우 회장은 무주의 미래를 위해서 장학재단에 기탁하게



되었다"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적상면이장협의회 정태성 회장은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적상면발전협의회 주락창 회장은 "무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뜻을 전했다.

무주읍 주민자치위원회 박남수 위원장은 "학생들이 꿈을 키워 지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농협 광동열 조합장은 "무주지역 청소년들이 향후 무주발전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들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2월 정기본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진안군은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322건, 8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량경과와 연수를 적용하여 부과하는데,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